

**Are You Listening?**  
**Series: Prayers, Week One**  
**Steve Mitchell**  
**January 4th, 2025**

듣고 계신가요?  
시리즈: 기도, 첫 번째 주  
스티브 미첼  
2025년 1월 4일

**MVMNT I: Intro**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listened to you?  
I mean, *really* listened with their whole being?  
You could tell by the attentiveness of their body language and eye contact...  
...that they were there, with you, really there, present in that moment.  
No interruptions. No phone. Just you.  
And what you wanted to share was all that mattered to them.  
One of the most profound truths in all Scripture is that Go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he One ultimately revealed in Jesus Christ...  
...is *that kind of listener*.  
AND...  
He not only listens. He cares deeply for you.

**MVMNT I: 서론**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정말로, 온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었나요?

그들의 몸짓과 눈맞춤을 통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온전히 함께 있었음을.

어떤 방해도 없고, 전화기도 없었죠. 오직 당신만.  
그리고 당신이 나누고 싶은 것만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죠.

성경에서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시라는 사실...  
...바로 그분이 그런 종류의 경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듣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돌보십니다.

As we begin our series on prayer today, we're going to share a lot about its practice.  
We're going to look at what prayer is, and what it isn't.  
How prayer addresses the demands and pressures of contemporary life.  
We're also going to give you practical insights that will help you pray.  
However, if there's only one idea that you take away from this series, let it be this:  
Prayer is about being in God's Presence more than anything else.

It's about how God invites us into His Presence.

So, let's explore how God listens to us,...

...empathizes with us,...

and invites us to trust Him with our cares...

In a way that ultimately leads to communion with Him.

오늘 기도에 관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실제적인 면에 대해 많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

기도가 현대인의 요구와 압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실용적인 통찰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임재로 초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듣고...

...우리에게 공감하시며...

...우리의 걱정을 그분께 맡기라고 초대하시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 MVMNT I: The God Who Is Nearby Hears Our Cry 기도에 대한 탐구 시작

- **Scripture:**

*Psalm 34:17-18*

*The righteous cry out, and the Lord hears them; he delivers them from all their troubles.*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and saves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시편 34:17-18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중심이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 **Key Points:**

- **David wrote this about a desperate situation** (note 34's prescription + v1)
- **God's attentiveness to the "righteous" BIG concept here!!!**  
God listens to the cries of His people with compassion and intent to act.
- **God's proximity:** He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not far off.
- **God's deliverance:** His hearing isn't passive; He actively works to bring rescue and restoration.

- **Story: Celine feeling heard...instilled by family; place, even a mobile place...**

- **Application: Cry out to God in times of need, knowing He is always near and ready to respond.**

- **주요 포인트:**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시편 34의 처방 + 1절 참고)

하나님의 의인에 대한 경청: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동정과 행동하려는 의도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근접성: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듣지 않으시며, 구원과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스토리: 셸린느가 들리고 있다고 느낀 이야기...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장소, 심지어는 이동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적용: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분은 항상 가까이 계시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VMNT II: The God Who Cares for Us Will Carry Our Burdens**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Scripture:**

*1 Peter 5:7*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 **Key Points:**

- God doesn't want us to carry our anxieties alone.
- His care for us is not conditional but rooted in His unchanging nature, His love for us.

*Romans 8:38-39*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nor any power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 Casting our cares is an act of "faith:" trust, surrender, and allegiance.
- **Story:** Confronted by Mark; confession/repentance: my initial instinct to self-justify - relational pressure builds/fractures; then surrender, confession, relief, and restoration.
- What burdens are you holding onto today? What's holding you back from casting them on Jesus, from surrendering that bag of rocks you carry around? Put it down, already.

베드로전서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핵심 포인트:

-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혼자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 하나님의 돌보심은 조건적이지 않으며, 변함없는 본성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염려를 맡기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신뢰, 복종, 그리고 충성.

이야기:

마크와의 직면; 고백/회개: 처음에는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본능적 반응 – 관계적 압력이

쌓이고 균열이 생김. 하지만 이후에 항복, 고백, 안도,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짐.

오늘 당신이 붙들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 짐을 맡기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들고 다니는 그 돌덩이 가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MVMNT III: The God Who Created Us Knows Us**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 **Scripture:**

*Psalm 139:4*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Lord, know it completely.*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 **Key Points:**

- **God knows all** our thoughts, words, and needs even before we express them. This would be horrific if not for His love and trustworthiness
- **God's intimate understanding:** His care stems from perfect knowledge of who we are.
- **God's patient invitation to commune with Him:** Even though He already knows, He *still desires that we speak with Him.*

핵심 포인트:

-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이 없다면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깊은 이해: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완벽히 아시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 하나님의 인내심 어린 초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 
- Story: "I don't feel Him" at lunch + "air pressure" illustration

No one knows my wife, Anita, as I do.

Some know her very very well, but not like I do.

Because of that exclusivity,

I can offer them insights about who she is that they otherwise wouldn't have.

And, that's RIGHT. That's good. That's the way God designed it.

Intimacy with God is similar, especially if you struggle with feeling God...

...sensing His Presence and care for you.

You may have to lean on others who know God in ways that you don't.

You may have to lean on their "faith," if you will.

Maybe you're one of those who enter God's Presence in prayer...

not because you feel it,

...but because you trust the testimony of someone who does.

Someone like a good friend, a pastor, or a family member...

이야기:

점심시간에 느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과 "공기압" 비유

아내 아니타를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매우 잘 알지만, 나만큼은 아닙니다.

그 독특함 때문에

나는 그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이와 비슷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분의 임재와 당신을 향한 돌보심을 감지하는 데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느끼기 때문인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분을 느낀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목사님, 혹은 가족 구성원 같은 사람 말입니다.

And it's okay to do that. God knows you. He made you the way you are.

He knows what you need — what support and pathways — to draw near to Him.

We can never surprise God. He's never shocked by us.

So, prayer is not about transferring information to Him. It's about *cultivating* relational intimacy in His Presence.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 지원과 길 - 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충격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관계적 친밀함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 MVMNT V: Concluding Encouragement + Summary

- God is always ready to hear from you; His care is constant and unwavering.
- Prioritize time spent with Him, making daily prayer part of your regular rhythm.
- Here's how:
  - **Create a place:** Scripture's emphasis on incarnate communion: Haggai, Zechariah, Ezra, Nehemiah, Exodus (even a portable place, like Celine)
  - **Discover a time:** your rhythm Pierre Ouellete "golden time"
  - **Make it a conversation:** with God, because that's what it is
  - **Still at a loss? Pray the Psalms:** model convo resource

## **MVMNT V: 마무리 격려와 요약**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매일 기도를 일상의 리듬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장소를 마련하세요:  
성경은 현현된 교제를 강조합니다.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출애굽기처럼 심지어 이동할 수 있는 장소도  
괜찮습니다.  
(셀린처럼 휴대할 수 있는 장소도 가능합니다.)
2. 시간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리듬에 맞는 시간.  
피에르 우엘레트(Pierre Ouellete)의 "황금 시간" 개념을 참고해보세요.
3. 대화를 만드세요:  
하나님과의 대화로,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4. 아직도 막막하신가요?  
시편을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모델이자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 **MVMNT V: Communion and Presence Response**

As we've seen, God hears, cares, and knows us completely.

The ultimate evidence of His care is the gift of His Son, Jesus Christ,...

...who defeated sin and death on the Cross.

He did that on our behalf, taking those burdens from us...

...and cleansing us — making us right with God: the “righteous” heard ones (Ps 34).

### ● **Reflection**

Let's not hurry through this moment.

Let's allow the Holy Spirit to meet us here, and share a brief silence.

If you want to, and you're ready, cast your burdens on God in prayer, right now.

Take a moment to thank God for drawing near and hearing you...

...and for the sacrifice of Jesus on your behalf.

### ● **Invitation**

Maybe this is your first time doing that, appropriating God's loving work on your behalf  
through Jesus' sacrifice on the Cross: His death and resurrection.

If that's you; If you've never before said to Jesus, “I believe you. Receive me into your  
Kingdom,” you can do that today. Now.

If you do, and you mean it, He will be faithful to welcome you as one of His own.

- **Participation**

Scripture

**1 Corinthians 11:23-26**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passed on to you: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MVMNT V: 교제와 임재의 응답**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돌보시며, 완전히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궁극적인 증거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로운" 자, 즉 들을 자격이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34편).

묵상

이 순간을 서두르지 마시다.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도록 허락하고, 잠시 침묵을 나누어 봅시다.

만약 원하고 준비되었다면, 지금 바로 기도를 통해 당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초대

혹시 이것이 처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전에 예수님께 "당신을 믿습니다. 저를 당신의 나라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의미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그분의 자녀로 신실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참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23-26**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같은 방식으로, 저녁을 마친 후 그분은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주님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Benediction:** May you always trust the God who listens as you seek His Presence. May you rely on His trustworthiness to make and keep you as His righteous ones.  
May we be people who continually praise Him, cry out in humility, and trust in His provision.  
And, may our lives testify to God's nearness and care. In Jesus' name, Amen.

---

축도: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성을 의지하여, 당신을 의로운 자로 삼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하고, 겸손히 부르짖으며,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과 돌보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